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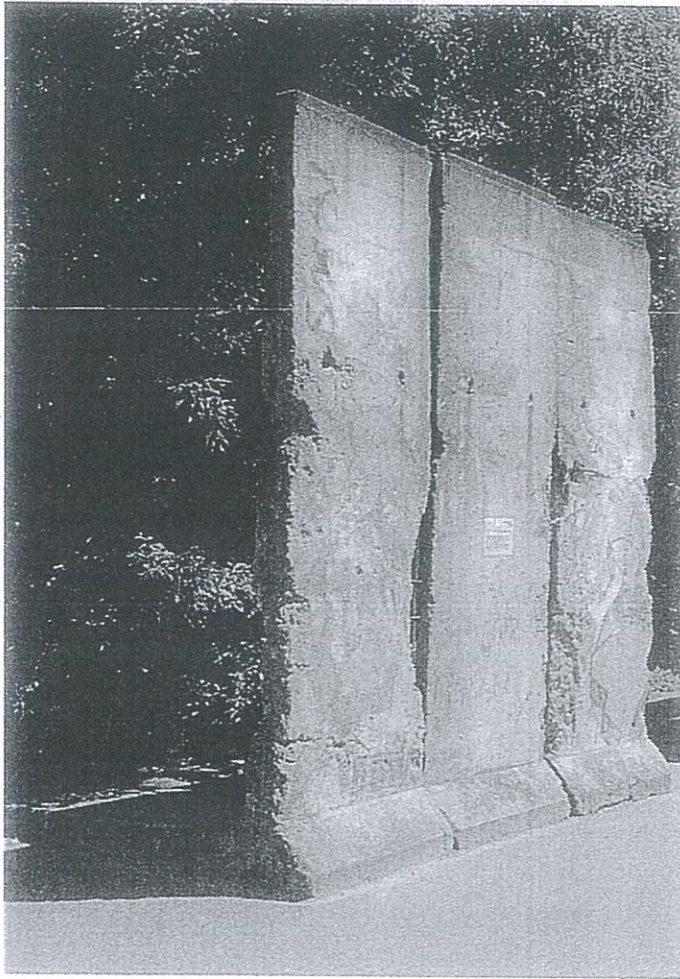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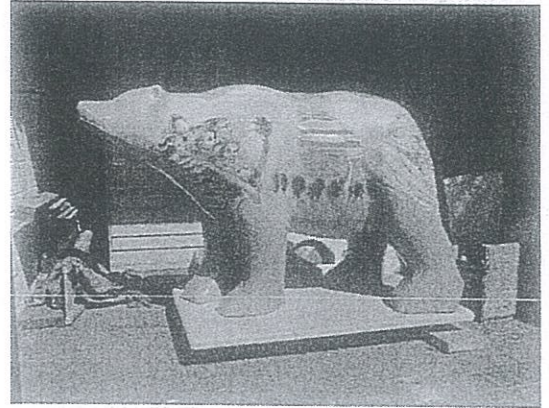
제목 : 청계천에 세워진 분단과 통일의 상징 베를린장벽

- 독일 베를린시에서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에 베를린광장 설치, 시민개방 -
- 베를린시 상징물 '곰'상, 공원등, 의자, 바닥포장까지 독일의 전통양식으로 -

-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독일 베를린시에서 청계천 복원에 맞춰 조성한 청계천2가 삼일교 남단(한화빌딩 앞) '베를린광장'이 26일(월) 공사를 마치고 27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 30여명의 자그마한 면적이지만 분단과 통일의 상징물인 베를린시에서 가져온 베를린장벽 3개와 베를린시의 상징동물인 '곰'상, 독일 전통식 공원등, 의자, 바닥포장까지 독일 전통식으로 직접 재료를 가져와 독일 기술자의 감독하에 조성되었으며 조성비용도 베를린시에서 부담하였다.
- 9월 6일 부산항에 도착한 높이 3.5m, 폭 1.2m, 두께 40cm의 베를린장벽 3개는 L자형(바닥 길이 1.8m)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람의 접근이 가능했던 서쪽 방향 벽면에는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글귀(낙서)가 다양하게 쓰여져 있으며, 완충지대가 조성되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동쪽쪽에는 깨끗한 벽면으로 남아있다. L자형으로 깎어진 장벽의 형태 또한 동쪽쪽에서 차량으로 충격해 탈주하지 못하게 턱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 베를린시의 상징인 '곰'상의 몸통 왼편엔 남대문이 오른편엔 브란덴부르크문이 그려져 있고, 베를린시민과 서울시민의 모습이 함께 화합하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한쪽 옆으론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시장의 명패석이 설치되어 있다(명패문안 별첨).
- 전통양식으로 공원등, 의자, 바닥포장까지 독일에서 공수하였고, 독일 그린베를린사 기술고문인 비저(Rolf H. Biser, 50세)씨가 9월 초 서울을 방문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직접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했다(청계천 배경의 광장 현황사진 웹하드 추가 게재예정).
- 청계천 '베를린광장'은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청계천의 명소로, 서울시와 베를린시, 나아가 한국과 독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계천에 설치될 베를린장벽



남대문이 그려진 곰상



독일 전통 공원등

<베를린광장 조성 기념 명패석 문안>

Diesen Berliner Platz mit Originalteilen der Berliner Mauer baute die Stadt Berlin für die Stadt Seoul. Die Mauerteile symbolisieren die friedliche Überwindung der Teilung Deutschlands und die Hoffnung auf eine friedliche Vereinig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Berlin, im Oktober 2005 / Klaus Wowereit Regierender Bürgermeister von Berlin

베를린시는 서울시를 위해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이 곳에 옮겨와 베를린 광장을 조성했다. 장벽은 독일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2005년 10월 / 베를린시장 클라우스 보베라이트